

2026. 7. 9.(목) 즉시 (온라인 보도)

■ 배포 즉시

「전통시장 지능형 출동 체계(시스템)」 구축 소방청·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업무협약(MOU) 체결

- 시장 내 정밀 자료(데이터) 및 동별 전자지도 연계로 119 긴급출동 황금시간(골든타임) 확보
- 상생 협력형 전통시장 안전 본보기(모델) 제시

□ 소방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이달 8일 오후 소방청 중회의실에서 전통시장 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119 출동체계를 구축하고자 「전통시장 지능형 출동 체계(시스템)」 구축 및 운영 관련 업무협약(MOU)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

○ 그동안, 전통시장은 불규칙한 점포 배치와 협소한 통행로, 다수의 출입구 등의 특성으로 인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소방 차량 진입과 정확한 위치 파악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어 왔다.

○ 기존의 소방 출동경로 안내 체계(시스템, AVL*)는 시장 내 개별 점포 정보가 부족하여 소방차 도착 위치가 시장 공영주차장이나 시장 외부 인접 도로까지만 안내되는 등 황금시간(골든타임) 확보에 일부 제약이 있었다.

* 소방 출동경로 안내 체계(시스템, Automatic Vehicle Location) : 점포 정보가 없는 경우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으로 안내되며, 점포 정보가 있는 경우에도 전통시장 외부 인접 도로까지 안내하는 방식

- 이번 협약은 전통시장 내부의 통행로, 소방시설, 점포별 위성항법시스템(GPS) 정보 등 정밀 공간정보를 반영한 '동(棟)별 전자지도'를 구축하고, 이를 소방 출동시스템과 실시간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.
- 시스템이 구축되면 출동하는 소방 차량이 재난발생 점포 앞까지 진입할 수 있는 최적의 경로를 소방 출동경로 안내시스템(AVL)을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받게 되어 출동 시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.
-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향후 2년 동안 전국 전통시장 중 시도별 2개소씩 추천받아 우선순위에 따라 지능형 출동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.
- 주요 협력 분야는 ▲ 전통시장 지능형 출동시스템 구축 및 활용 ▲ 전통시장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 개선 및 화재 예방 활동 협력 ▲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현장 정보 공유 및 신속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▲ 화재 예방 홍보(캠페인), 안전교육 및 홍보 활동의 공동 추진 ▲ 지역 소방관서와 공단 지역센터 간 협업을 통한 합동 점검 및 안전활동 추진이다.
-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“전통시장 화재는 초기 진압과 신속한 소방차 진입이 피해를 줄이는 핵심”이라며, “이번 전통시장 지능형 출동체계(시스템) 구축을 통해 대형 화재 위험이 높은 전통시장의 안전 기반(인프라)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	책임자	과 장	이중기 (044-205-7470)
		담당자	소방령	김청옥 (044-205-7471)

